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 금향로가 차기까지

January 2020



아스마 빨래망 프로젝트  
15 페이지

# contents

|   |  |
|---|--|
| <b>발행인단신</b>                            | <b>안나의 골방</b>  |
| 4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18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로 내보내겠는가?   |
| <b>리더십 칼럼</b>                           | <b>미션프론티어스</b>   |
| 7 천지만물 모든 것을 흔드시는 하나님                   | 20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아닙니다<br>하지만 모두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 <b>교회 개척 사역</b>                         | <b>터키는 지금</b>  |
| 9 앤센릭 올순: 주님의 살롬과 평안이<br>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 26 터키의 하마스 보호는 중동 평화에 큰 타격<br>28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동 민족지도 재편을 희망한다              |
| <b>차이저만</b>                             | <b>중동</b>  |
| 12 이집트 사역의 길로 헌신한 사역자와 만나봅니다            | 32 미국의 커다란 파워 문제가 중동에서 다시 불거질 것이다<br>35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사건: 이란 크리스천들에게 미치는 영향 |
| <b>선교지에서 온 기도 편지</b>                    |  |
| 15 아스마 빨래방 이야기                          |  |

## 2020년 1월 31일 통권 113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이은옥, 장영미, 김은현, 김룻  
 디자인: 민은경  
 번역: 손나래,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 표지설명: 아스마 빨래방 프로젝트 (p.15)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 실크웨이브 USA

운영이사장: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부이사장 손경일 목사 (새누리 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운영이사 강남수목사 (뉴저지만나교회)  
 강민수목사 (레이크뷰언약교회)  
 고희목사 (뉴욕하은교회)  
 권준목사 (시애틀형제교회)  
 권혁천목사 (상향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오래공새로운교회)  
 김영하목사 (헌스빌한인장로교회)  
 김태형목사 (ANC은누리교회)  
 김학진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한오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윤명호목사 (뉴저지동산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이형석목사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경일목사 (원페밀리교회)  
 정찬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나리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추한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음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버지니아영광장로교회 (황영선목사, Poquoso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메이연합교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인랜드교회 (안환목사, Pomona, CA)  
 주님세움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국교회 (전형진목사, Colorado Spring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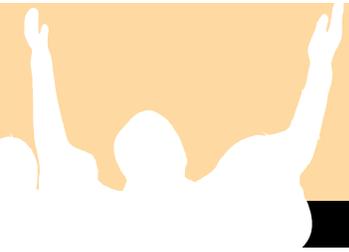
### 실크웨이브 KOREA

운영이사장: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진영 선교사 (SWM 국제/미국 대표)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 후원교회:

새순교회 (김병동 목사)  
 세종 빛과소금교회 (백현우 목사)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천지만물 모든 것을 진동하시는 (학 2:6-7) 하나님께서 계속 열방을 흔드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시고, 개인, 가정과 교회를 흔드셔서 우리 모두 깨어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소서!
- SWM 리더십 위에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연합의 영을 허락하셔서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사역들 위에 오직 주님의 온전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모든 교회 개척자(CP)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들이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성경의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 37:1-14)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대하 7:14) 영을 부으소서!
-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님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벧전 4: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매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혹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시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과 내용이 되어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며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통치가 이 땅과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할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장차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계 21장).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으며 그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 모두는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한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지만 삶의 목적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 같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 **셋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행복과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영적 돌파를 이루고 영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생긴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어놓고 용서받고 용서함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이 회복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6:33).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는 헬리어로 '기회를 사라(buy the opportunity)'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소유(시간, 물질, 은사 등)를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 동역자 한 분 한 분을 기회와 축복의 장소로 초청합니다!





## 터키 쿠르디스탄 이집트 2020 킹덤 아웃리치

### 1. 킹덤아웃리치: 터키, 쿠르디스탄, 이집트

**일정:** 4월 16일(목) - 25일(토), 터키 현지 시간

**사역내용:** 복음전파, 교회개척, 난민사역

4-10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터키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었거나 개척될 지역에 가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항공권은 45일 이전에 구입해야 저렴하기에 각 교회에서 아웃리치팀 구성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터키 비전트립

**일정:** 4월 13일(월) - 22일(수), 터키 현지 시간

**사역내용:** 갑바도기아, 수리아 안다옥, 계시록 일곱교회, 이스탄불 방문

위의 비전트립 방문 외에 뷰옥아다섬 사역(4월 23일)과 연합기도회(4월 24일)의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가 일정을 원하시는 분은 4월 25(토)일에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국제항공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등록문의: 허창도 간사 (714.999.8639) | 한국: 임동혁 간사 (010.8632.0278)

[www.silkwavemission.com](http://www.silkwavemission.com)



## 천지만물 모든 것을 흔드시는 하나님



글: 김성간 목사 (SWM 선교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6-7)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히 12:26-27)

하나님께서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섭리와 주권 하에 천지만물 모든 것을 직·간접적  
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와 전  
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뿐 아니라 중동지역과 세계 전역에  
서 정치, 군사, 경제, 이념 등의 충돌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와 미국  
남가주의 끊임없는 산불, 세계 각처의 극심한 가뭄,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오염 및 파괴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롬 8:19-22). 더 나아가 “온 땅이 하나  
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입니다(창 6:11).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  
역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  
광이 충만”(학 2:7)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세상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온전히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흔드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  
니다.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열방 즉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은 이  
러한 시종을 알 수 없는 여러 진동들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전 3:11). 그리  
고 그들은 이러한 진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진  
동은 바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롬 11:25) 마지막 시대 영적 대추수의 시작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시 22:27-28).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드심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와 성도를 흔들어 마지막 시대 영적 대추수를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그리고 개인을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흔들고 계십니다.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워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요 4:35)을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 대추수를 감당하는 새 부대(마 9:17)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살전 3:13) 순결한 신부로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신랑을 맞이 위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마 25:1-13)가 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어 알곡과 가리지 가운데 온전한 알곡(마 13:23-30)을 곡간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벧후 3:14)**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정, 교회에 필요한 여러 영역을 직·간접적으로 흔들어 정결케 하셔서 새 부대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혼드시는 목적이 결코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영존한 것(히 12:27)을 남겨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렘 29:11-13)**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복된 새해 2020년을 맞이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열방들과 당신의 백성을 계속 더 혼드시실 것입니다. 열방들을 향한 마지막 시대 영적 대추수는 계속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순결한 신부, 지혜로운 신부, 새 부대와 알곡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 임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혼드심으로 격동하는 열방들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새해 2020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 에센릭 올순:

주님의 살롬과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글: 이성영 (기쁨이 있는 교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엡 6:21-22)

안녕하세요. 2019년 여름, 3주 간 터키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느끼며 기록하는 '두기고 프로젝트'에 동참했던 청년 이성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끝 인사에 등장하는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떠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아 에베소 교회로 떠났던 두기고처럼, 저는 터키 여러 도시에 세워진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사역자와 교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은 사역에 스토리텔링 작가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작문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막연하게 작가의 꿈을 꾸고 있던 제가 글을 쓰러 터키에 떠난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기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영적 불모지로 여겨졌던 중동 땅에 열매가 맺히고, 추수의 때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점에 중동의 유럽이라고 불리는 터키에 가는 것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듯 선교 여정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번번이 회사 면접에서 탈락하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흔히 말하는 선교를 갈 때가 아닌 환경이었습니다. 터키에 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돌고와 가정의 지지가 명백하게 필요했습니다. 스물 일곱이라는 나이가 마냥 어리지만은 않았기에 많은 부담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멘토로 이끌어주셨던 이재진 목사님의 지지와 기도를 통해 홀연히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가정의 반대와 재정의 벽이 기도와 후원으로 풀어졌고, 저는 무사히 3주 간의 터키 여정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선교가 처음이었던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비전으로 중동 선교를 외치고 있었지만 경험해보지 못해 막연히 알고 있던 저로서는 마냥 기대감만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고한 이슬람의 영을 마주했습니다. 터키 출국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일년에 한번 아플까 말까 했던 제 온몸이 이유 없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장기를 토해낼 듯한 기침이 이어졌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날마다 항생제를 먹고,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았지만 출국 하루 전까지도 체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터키에 갈 수 있겠느냐는 주위 사람의 반응에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며 출국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다가도 불현듯 기침이 나오면 속으로 삼키기도 하고, 숨을 참기도 하고, 말 그대로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

두기고 프로젝트는 2019년 7월 3주 동안, 한국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담임)의 청년 2명 (작가: 이성영, 영상: 이상현)이 터키에 있는 교회개척 사역자들과 현지 교회개척자들을 만나 터키 외부 지역에 터키의 현지 소식을 알리는 일을 담당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 견딜 수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터키 땅을 화산처럼 분출하고 폭발하는 정열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무슬림 기도 음악이 흘러 나오고 정면에서 옆으로 잠깐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대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곳곳에 보일만큼 무슬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불타는 사랑만큼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터키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엇인가에 눌러있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 내가 이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두려움마저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인 선교사님을 인터뷰하게 되었고 제 안에 있던 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눌려서 무얼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는 목도하리라.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알게 되리라.”

어둠의 영으로 막혀있는 터키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는 그곳에 서 있음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터키 현지인 목사님과 결혼하신 후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어내고 살아계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손목이 치유되고, 어그러진 척추 뼈가 고쳐지는 기적들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끼며 환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했던 안디옥에는 현재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의 땅 끝 지역 안디옥은 시리아 국경과 인접해 있어서 터키문화와 아랍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님과 CP(Church Planter)는 난민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원조를 넘어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넘어선 복음 사역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마주하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시리아인 다음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치며 키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는,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2007년 순교 사건이 있었던 말라티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웬지 모를 강인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피가 뿌려지고 세워진 말라티아 교회는 어떤 핍박도 능히 이겨낼 힘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동굴을 파고 돌을 깎아서 만든 마을이 많은 갑바도기아, 비록 핍박과 고난에 맞서서 순교 당할 용기는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피가 뿌려진 교회를 지키고 있는 말라티아의 그리스도인들과 땅 속 지하에서 기도와 예배로 믿음을 지켜냈던 갑바도기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물려있는 수도 앙카라에서는 곳곳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현지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학생을 상대로 청년 사역을 꿈꾸고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청년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앙카라에 머물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공동체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타지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은 공동체라는 이유로 가족처럼 마음 편히 내어놓을 수 있음이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흑해 지역인 삼순을 방문해서 터키 현지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터키 정부에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여전히 테러의 위협이 있지만 굳건하게 교회를 지키고 계신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에 상주하며 사역하고 있는 CP를 만났습니다. 터키어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삼순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기억납니다. **에센릭 올순 (Esenlik Olsun)**이라는 주님의 살롬과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란다라는 한 문장이 무척 기억납니다. 터키 여러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모든 장애물을 녹여버리고 뿜어내는 것처럼, 터키 땅에 숨겨진 화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이 분출한다면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활활 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은 터키와 터키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두기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많은 감정과 생각이 교차합니다. 터키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 속에서 무뎠지고 잊혀지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스물 일곱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무얼 해야 할까 고민하며 매일 울던 때에 갑작스레 터키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들다가도 터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놀랍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달렸습니다. 터키 땅을 밟고 서있는 모든 순간이 살롬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 인생에는 새로운 막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는 말씀처럼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두기고 프로젝트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벽한 서사를 이루심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항로가  
차기까지

## 차이자만



# 이집트 사역의 길로 헌신한 사역자를 만나봅니다

김기덕, 전세희 사역자는 현재 이집트 사역자로 2018년 7월 SWM 선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집트 사역자로 헌신했고 MVP(Mission Venture Partners)의 이집트 팀(Kings Highway Partners) 소속 사역자로 이집트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세웅 총무와 김기덕 선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기덕, 전세희 사역자



사회: 이세웅 편집인 (SWM 선교회 실행총무)  
참석자: 김기덕 사역자 (이집트 사역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집트 사역자로 섬기고 계신 김기덕, 전세희 사역자님의 간증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기덕 사역자님의 미국에서의 삶을 듣고 싶습니다.**

6년을 넘게 지내왔던 미국에서의 삶과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중동의 이집트, 이곳까지 신실하게 저희 가정을 이끄신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차게 시작한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적 불합리함과 재정적인 결핍, 불확실한 미래와 같은 삶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미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6년간의 삶을 경험했고 이는 곧 '하나님의 강함'

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 삶의 통치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미국에서의 삶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이끄신 과정을 나눠주시겠어요?**

달라스에서 3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캘리포니아의 '게이트웨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삶의 또 다른 시즌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겨우 미국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새롭게 맺어 주시는 관계를 통해 비자 문제의 해결, 경제적인 안정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저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결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부터 SWM 선교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집트 선교사인 현재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 받을 때 저와 아내가 먼 거리에 있었기에 큰 기대도 없었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하던 중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지금의 아내와 첫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무엇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인상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 저희는 SWM 선교회센터에서 조촐하게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두신 귀한 만남을 통해 결혼으로 나아간 과정을 나눠주셨는데요. 어떻게 이집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셨나요?**

특별히 지금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 “이집트는 불편하고 힘든 곳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 땅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느껴지는 땅이기에 이집트에 머물고 싶다”라는 말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듯 결혼이 결정되고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미국에서의 삶을 이어갈지 멈춰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느껴지는 땅”이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이 또한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결정을 하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셨군요. 그럼 그 이후 선교지에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미국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미국의 삶을 내려놓고 2018년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기 시작하는 진정한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40여 년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과정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관계들은 물론이고, 처음 경험하고 다뤄야 했던 서로의 서툰 감정과 상처들, 함께 싸매며 보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의 시간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어 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가는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선교사로 우리 부부를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1년간 한국에서 사는 동안 머물 집, 필요한 재정, 선교사로 받아야 할 훈련, 목사 인수 등 많은 것들을 저희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 걷는 길에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하나 당





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가을에 주님의 마음이 가까이 느껴지는 이 땅, 아내가 사역하던 이집트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땅을 매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흥미롭고 이상한 땅이지만 매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두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맞보시는 과정이 참 놀랍고 귀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역자로 나아가신 그 땅, 이집트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시겠어요?**

마가를 통해 이집트에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생명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는 중동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이슬람에 의한 핍박과 박해는 이들의 선교 의지를 꺾어놓았고 기독교는 성장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11년 1월 이집트의 시민 혁명이 일어났던 같은 해 4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며 이집트와 주변의 중동 국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던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과급력 있게 복음이 확산되고 무슬림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아랍어 또한 중동 여러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와 이집트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선교사님의 나눔을 통해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김기덕 사역자님은 어떤 사역팀에 소속되어 있고 그 팀은 어떤 사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속한 MVP(Mission Venture Partners)의 이집트 팀 (Kings Highway Partners)은 선교에 주저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훈련 시켜 중동 각지로 보내어 아랍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 이집트 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음성에 매 순간 순종하는 가정되기를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영육이 강건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 저희 부부가 아랍어를 배우는 가운데 특별한 언어의 은사가 부어지고 지혜가 부어져서 은혜 가운데 아랍어 언어가 잘 배워지고 습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사역과 삶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두려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아스마 빨래방 프로젝트

글: 제카이 목사 (이즈미르)  
번역: 한국 번역팀

터키 개신교회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신 제카이 목사님과 앨리스 사모님은 이즈미르에서 난민들을 위한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대의 세탁기를 가지고 많은 난민 가정들이 마음 편히 빨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지나 마침내 겨울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폭우로 인해 집들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난민들이 모두 살고 있는 이즈미르의 바스마네에 있는 람사클 쿼터는 시설들이 제한되고 바닥은 오래된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집들 중 많은 건물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지어졌으며 그 당시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로 거주했습니다. 이 지역의 몇몇 작은 모스크는 반원형 지붕으로 옛 교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난민들이 고향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공격을 견뎌 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터키 전역은 1차 세계대전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1915년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망했고, 1923년 독립 전쟁 말기에 터키 공화국이 성립된 후 실시된 강제 인구 송환 기간 동안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로 추방되었습니다. 바스마네 지역은 우리에게 이런 슬픈 사건들을 상기시켜주는데, 지금은 21세기 피난민들의 본거지가 되었고, 그들은 100년 전, 그들의 공동 운명이었던 전임자들처럼 그들이 집과 땅을 떠나야 할 것 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은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 이곳에 보유하고 있는 세탁기 7대 모두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세탁물이 들어옵니다. 소나는 빨래를 하지 못해 실망한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 놓고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그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 빨래를 그만둔 여성들은 여전히 사실상 터키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가족 집단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배우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 많은 남편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많습니다. 종종 청구서를 지불할 돈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많은 가정들은 침대 벌레와 쥐의 침입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은 저희를 압도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의 편지를 읽으신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2020년 빨래방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재정 지원은 빨래방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정기적인 운영비와 더불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터키 직원들이 지역 당국과 학교 교감 선생님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특정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복, 가방, 기본적인 문구류 등을 구입했습니다. 저희는 학기 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구류 등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학생들의 절차 가운데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많은 어머니들과 추가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노력이 가치 있는 것임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그들의 또래 집단과 함께 하루 종일 터키어를 들으며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이 더 많은 삶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몇몇 여학생들이 학교를 7, 8학년까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찍 결혼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14세의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루에 30-40명의 아이들이 저희 빨래방을 방문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숙제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독해력과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같은 학년의 학생들을 2-3명을 함께 앉혀서 동시에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돕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숙제가 끝나면 간단한 게임, 퍼즐, 그림 그리기 등 재미있는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소녀들에게 인기 있는 차 세트를 개조했는데, 그들은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노란색으로 된 연필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또한 저희는 검정, 갈색, 그리고 짙은 녹색 연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 몇 명은 1학년에 등록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빨래방의 도움 없이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은 빨래방에 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요.”라고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두 형제는 말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자, 스웨덴의 한 교회의 여성 단체로부터 양말 뜨개질 위탁이 이곳에 있는 어머니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들은 함께 양말 뜨개질을 하고 다른 중고 옷들을



자르면서 대화를 합니다. 항상 필요한 공급을 초과하는 것을 봅니다!

3명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남편이 있는 자매도 있고 없는 자매도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돌봐야 하는 자신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돌봐야 할 친척의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제 결혼의 해체를 경험하는 등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무함마드는 이제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굽은 발을 가지고 태어나는 등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그를 데려가려 하면 일차 보호자인 이모에게 미친 듯이 매달립니다. 저는 아직 그가 웃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발은 수술을 받아 깁스를 하고 있고, 다른 발은 몇 달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무함마드가 언젠가는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함마드를 위해 기저귀와 유아용 조제분유를 공급해 왔습니다).



미래를 전망해볼 때, 현재의 상황이 1년 전보다 조금도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난민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50만 명의 출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완충지대에 대한 계획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 누가 자진해서 그곳에 가려고 할까요? 몇 년째 터키 교육 제도를 따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곳에 있는 난민들은 반드시 처음에 등록되어 있던 지방에 살아야 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이스탄불로 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차출되어 다른 곳으로 보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신실한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고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존엄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안나의 골방

##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광야로 내보내겠는가?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담당하시며 매우 열정적이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려서 결국은 그 딸이 선교를 포기하였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는 등 교회 일에 매우 열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하고 목사한다고 했더니 제발 당신은 목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더이상 신앙생활 못하고 가난해지지 않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남편에게 목회하려면 이혼 하자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좋은 직장 내려놓고 신학해서 목사된다거나, 다른 집 자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믿음 좋고 대단하고 너무 귀하다고 칭찬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연결되면 두 팔 걷고 반대하는 이런 아이러니 한 상황 앞에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사가랴”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으로  
세례요한 또한 자라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이라 칭함 받을 정도로  
신실하고 실천적인 신앙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만큼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당시 타락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기에  
분명 존경받고 사랑받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 애미라면 자녀에게 더더욱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 사는 것을  
선택하도록 도우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위험이 없는 삶이기에 원할 수 있겠지만..





사기라..  
 이 아버지는 자녀의 부르심의 성취를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 음성 붙잡고  
 아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버와 함께 시작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늘의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기도와 토라와 금식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세례요한이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임한 날..

세례 요한은 하늘의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풀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아버지인 사기라는 아들 세례 요한을 광야로 내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사기라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자녀를 광야로 내보내겠습니까?  
 누가 사기라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인 사기라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쉼 없이 비취이는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였듯이,  
 이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풀어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욕심과  
 자신의 자녀로 키우고자 하는 이기심과  
 세상에서 잘 사는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풀어놓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늘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며, 부르심 준비하며  
 광야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향해  
 기꺼이 지지해주는 사기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데이빗 플랫 인터뷰  
번역: 손나래 (LA 연합교회)

데이빗 플랫 박사는 버지니아의 맥린에 위치한 맥린 성경 교회의 목회자이자 교사이다.  
그는 또한 뉴욕 타임즈 베스트 셀러인 [래디컬: 성공 신화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작가이기도 하다.

플랫 박사는 2011년 후속편인 [래디컬 투게더: 래디컬 제자에서 래디컬 공동체로 도약하러]를 집필하였다.

- 목사님은 수년간 목회를 하시는 동안 지역 교회들의 사역 초점이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선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꾸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향한 목사님의 예언적 도전은 무엇에 기반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단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 (마28:18-20, 눅24:47)으로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 하시는 (계5:7-9) 것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상대명령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 신자들은 지난 50년 혹은 그 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와 주차장 출구에 "당신은 이제 당신의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라고 쓰여진 간판을 보아왔습니다. 이 문구가 어떤 좋은점, 나쁜점, 불편한점 등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좋은점: 우리는 어디를 가건 소명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며 활동하는 곳 어디서든 그 소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쁜점: "당신의 선교지"를 강조한다면 당신의 주변 사람과 장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장소는 외면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편향된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점: 모두가 "우리 교회" 바로 주변에 위치한 "우리 선교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20억이 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채 태어나 살다 죽게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우리의 선교지로 보아야만 합니다.

- 교회의 실천적인 사역을 "선교"와 동일시 하며 모든 제자들을 "선교사"라고 불러온 것이 세계선교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개인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과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요 20:21)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을 선교사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보냄과 명령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일상의 모든 측면을 선교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이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거의 틀림없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있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자를 삼는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지역 교회는 반드시 세계선교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듯 성령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신자들의 일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몇 사람만) 따로 세워 보내셨음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복음이 미치지 못했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특별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4절에 근거하여 선교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령님에 의해 특별히 구별되어 지리, 문화 혹은 언어적 장벽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사람들과 장소로 가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 팀의 일원으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모든 기독교인은 선교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면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 너머에 있는 절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사람들도 그렇게만 한다면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러 떠나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이들이 선교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삼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 누구를 따로 구별하셔서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실 것인지 간구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열방에 파송하는 이들을 선교사라 부릅시다.

**-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탈문화적 선교는 어떠한 형태로 지역 교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할까요? 모든 교회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규모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모든 지역 교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지상대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교회마다 각기 다른 규모와 요인으로 인해 분명히 다양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몇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계속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교회를 빚어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추수밭에 나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마 9:35-38). 모든 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열방을 제자로 삼는 제자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성경적 제자도는 반드시 전 세계적 목표 (열방 가운데 제자들을 삼는)를 가지고 전 세계적 맥락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의 핵심 역량은 자신의 출생지와 같은 곳에 머물러 사느냐 혹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글로벌 도시로 가서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늘 동일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계 어느 곳이건 보내시면 이들이 더 많은 제자들을 삼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제자들을 삼고 교회로서 모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목표지만 목사로서 제가 이보다 더 낮게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꾼들을 보내야 합니다.**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를 구하고 그에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사도행전 13장 유형의 주말을 보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주님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중 누구를 보내실 것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후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분은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모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기선교여행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기선교여행의 유익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단기선교여행을 전 세계와 교회들 모두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





습니다. 종종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장기선교사로 (그리고 선교 사역에 기하 급수적 차원에서 동참하도록)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향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마6:21). 우리의 마음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보물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도록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야기할 것이 많지만 이것이 유용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회자들과 주요 리더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과 영향력은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과 주요 리더들이 교회가 선교의 비전 (예를 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지역 교회가 어떻게 주요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회자들과 주요 리더들 스스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마도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주요 리더들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네, 명령하셨습니다) 대한 비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주요 리더들이 선교 비전을 가지게 되면 틀림없이 교회 내에서 반발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있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힘겹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댓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반드시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그분의 담대함도 지녀야 함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종종 교회의 선교와 세계 선교에 있어 교회가 맡은 중심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둘을 전혀 연결시켜서 보지 않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아는 것이 행함 보다 먼저이고 아는 것이 행함을 형성한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지역 교회를 이끌어 가며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이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시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읽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의 “열방을 향해 가라 (Let the Nations Be Glad)를 읽어 보십시오. “아도니 램 저드슨의 생애” (To the Golden Shore)와 같은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어 보세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God’s Heart for the Nations)”을 읽고 연구해 보세요 (저 자는 제프 루이스이며 radical.net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책을 읽을 때 당신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선교 사역을 이끌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가지 않 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오세요.**

저희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세계선교 사역을 위해 어떻게 지역 교회를 양육하고 섬기며 인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래 디컬 인텐시브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radical.net에 더 자세한 정보를 올릴 예정입니 다.

• **보아야 합니다.**

지역 교회 사역과 세계선교의 관계를 찾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일 저 는 결혼과 이혼에 관해 설교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놓고 멤버들을 격려하며 결혼과 선교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결 혼은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그 자 체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디자인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결혼 문제에만 제한하지 말고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목회 사 역은 열방 가운데서 제자 삼는 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 **미전도 종족들에게 활발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화가 교회의 건강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회가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참여하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간단히 말하자면 교회가 지상대명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불순종 한다면 건강하게 (혹은 성경적으로는 신실하게)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상대명령 (열방에서 제자들을 삼는 것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 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교회 역사의 첫 300년 동안은 교회의 구조가 지시와 통제의 구조라기 보다는 선교를 위해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게끔 조직된 구조로 보입니다.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 중심적인 세계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초대 교회 시대를 소위 “황금 시대”라고 보는 것이 조금 망설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 교회들은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보이며 이런 갈등들이 이후 몇세기간 지속되어 보입니다. 저는 또한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교회의 구조화와 조직화라고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비주의, 물질주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비성경적 관점을 포함하여 교회가 가진 심각한 문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향한 열망, 복음(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포함하여)에 대한 깊은 확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열방 가운데서 제자들을 삼고 교회들을 부흥시키도록 돕는 조직과 구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출처: <http://www.missionfrontiers.org/issue/article/we-are-not-all-missionaries-but-we-are-all-on-mission>〉





## 터키의 하마스 보호는 중동 평화에 큰 타격

글: 도레 골드 (12/18/2019)

번역: 한국 번역팀



하마스 공작원들이 이스탄불에서 공격을 모의하고 있다는 텔레그래프의 공개는 터키 정부 신뢰도에 불편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

### 하마스 |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 제1호

하마스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혼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다. 이 단체는 1987년에 설립되었고 중동의 어떤 국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존재에 반대한다. 대신 이스라엘을 포함한 역사적인 팔레스타인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를 맹세한다. 그것의 세속적인 경쟁자인 고 아세르 아라파트의 파타(Fatah)는 보다 온건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두 개의 국가 해결책을 지지한다.

하마스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수백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들을 죽이는데 자살 폭탄 테러범들을 이용했다. 하마스는 미국과 EU에 의해 테러단체로 간주되고 있고, 영국은 무장한 부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하마스는 2006년 가장 최근의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후 가자 지구에서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며, 파타당의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두 그룹은 여전히 치열한 라이벌로 남아 있고 하마스는 부분적으로 파타가 통제하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터키가 하마스의 고위 지휘관들에게 이스탄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 소식은 보다 평화로운 중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서방의 동맹국들의 노력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014년 중반, 세 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하마스 공무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된 것으로 기억된다. 이 테러의 장본인은 시리아에 거주한 뒤 터키로 이주한 살라 알-아리우리로 터키 땅에서 하마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는 카타르와 베이루트로 이주하면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지만, 결국 터키로 돌아와 현지에서 팔레스타인을 파견했다.

자체 현장에 따르면 하마스는 1928년 이집트에 설립된 후 여러 나라로 확대된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다. 지질학적으로 그 운동은 잃어버린 이슬람 영토를 스페인에서 발칸반도로 회복하는 것을 지지했다.

하마스의 지도자는 1966년 이집트 감옥에서 암살당했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중 일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하여 알 카에다를 적극적으로 설립하였다. 터키 무슬림들은 1683년 비엔나 게이트에서 오스만 패배에 대한 복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마스는 충성도가 높은 조직이다. 1990년대 초에는 사우디로부터 돈을 빼앗았고 9/11 테러 이후 이란은 카타르의 주된 후원자가 되었다. 2003년경 이스라엘 방위군이 요르단강 서안의 교육기관에서 발견한 포스터에는 하마스 창설자 카타브, 사밀 바사예프,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하마스 지도자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방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를 격파했지만, 여전히 이집트 군과의 반란 전쟁에 연루된 북부 시나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때로 하마스는 IS와 경쟁하기도 하지만 협력하기도 한다.

터키의 동향 분석가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미래가 비관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다 급진적인 터키의 동맹국인 척하는 이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주요한 적으로 남아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은 터키에 잠입하여, 동부 지역의 모든 마을을 시아파로 개종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란인들이 모로코, 수단, 그리고 이집트에서 따랐던 관행이다. 이스라엘은 특히 스페인 종교재판 이후 서유럽에서 탄압을 받았던 유대인 난민을 보호하는 오스만의 정책을 떠올린다. 터키는 이스라엘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 현 세기의 나머지 기간에 나타날 세계 질서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풍부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을 제거해야 한다.

**골드 대사는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외교부 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예루살렘 공공문제 센터의 사장이다.**

<출처: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12/18/turkeys-protection-hamas-huge-blow-peace-middle-east/>>





##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동 민족지도 재편을 희망한다

글: 닉 애쉬다운 (11/8/2019)

번역: 한국번역팀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도를 들고 있다. 스테파니 키스/게티 이미지

터키의 최근 시리아 침공이 많이 비난받고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추방하고 안전지대에 정착시키려는 계획 때문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랫동안 터키 국경을 따라 시리아에 이른바 안전지대를 제안해 왔으며,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현재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360만 명 중 100만에서 200만 명을 안전지대에 재정착시키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제안의 실질적인 장애물들은 방대하다. 그러나 가장 큰 정치적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첫째, 실제적인 목표를 고려해 보자. 터키와 러시아 간의 10월 터키의 침공과 후속 협정으로 앙카라는 시리아의 텔아비아드와 라스 알-아인 마을 사이의 75마일 국경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터키와 러시아의 공동 순찰은 남쪽으로 6마일, 미국이 이끄는 안전지대가 국경에서 20마일 연장되었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초 희망했던 국경을 따라 300마일에 이르는 20마일 폭의 거대한 지형보다 훨씬 작은 규모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1월 1일까지만 해도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결심을 되풀이해서 말했지만, 터키는 너무나 작은 400평방 마일의 지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그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백





만 명의 난민들을 매우 좁은 땅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며 터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군 대학원 터키 안보국의 라이언 진게라스 전문가는 말했다.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정착된 난민들의 대부분이 알레포와 이дли브 출신의 아랍 순니파 이슬람교도들이라는 점이다. 알레포와 이дли브는 안전지대쪽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 지역에는 아랍인, 쿠르드족, 기독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 많은 비평가들은 터키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쿠르드족 집권당 민주연합당(PYD)의 지지자들과 쿠르드족의 존재를 줄이기 위해 이 지역을 인구통계학적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인구통계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실제로 중동 난민들을 유럽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는 문을 열어 시리아인들이 유럽으로 가게 해서 유럽이 시리아인들로 홍수를 이루게 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0월 24일 시리아 북부에서 인종적으로 혼재된 것을 언급하면서 기자들에게 "아랍이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의 생활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다.

약 30만 명의 쿠르드족 주민들이 터키군과 아랍 반군 동맹국을 피해 시리아 북부로 탈출한 후, 터키 대통령은 인종 청소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18년 3월 터키군에 의해 아프린시가 점령된 후 약 17만 명의 쿠르드인들이 망명했으며, 다른 곳에서 온 많은 아랍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린 칼리파는 국제 위기 그룹의 시리아 고위 분석가로 최근 시리아 북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는 "재정착 계획이 발표될 때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아랍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쿠르드족 도시들로 이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칼리파는 터키가 얼마나 많은 수의 난민들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킬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앙카라가 일부 난민들을 이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터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터키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에르도안 정당이 지난 6월 지방 선거에서 큰 손실을 입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터키는 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국제법상 불법인 이дли브로 강제적으로, 그리고 종종 폭력적으로 추방해왔다.

이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이 어떠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인구의 강제 이동은 구 오스만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리아 북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오스만





시대에 추방 또는 유배된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형성된 인구 통계 공학의 한 형태로 자주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5세기에 아니톨리아의 인구는 오스만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발칸으로 이동되었다. 이후 무하키르스로 알려진 무슬림 난민들은 발칸, 코카서스, 크림반도에서 박해와 인종청소를 피했다. 1783년 러시아 제국이 크림반도를 정복한 것과 1913년 제2차 발칸 전쟁 사이에 500만에서 7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오스만 영토로 탈출했다. 그들은 곧 다시 한번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오스만 당국은 그들을 충성스러운 무슬림들로 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난민들을 배치하거나 종교적 소수자들을 희석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피신시켰다.

시리아는 오래 전부터 인구 통계 공학의 표적이자 망명이나 피난처의 목적지였다. 러시아인들의 손에 의해 대량학살을 피해 도망치던 서커스 무하키르인들은 오스만 당국에 의해 반항적인 드루제와 베두인 부족을 감시하기 위해 결국 제국의 불안한 시리아 지방으로 다시 정착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10만 명의 후손을 남겼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현재 내전에서 도망쳤다.

이 지역의 가장 악명 높은 강제 이동 사건은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이었는데, 최근 미국 하원이 터키의 시리아 침략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테시르(재배치)라는 미명 아래 100만 명 이상의 아르메니아인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대부분은 주기적으로 대량학살에 의해 사망하였다. 시리아의 디르 예조르에 있는 강제수용소는 강제 이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였다.

1923년 등장한 터키 공화국의 발전에도 인구 공학 및 강제 이주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아니톨리아 전체에 걸쳐 통일국가가 부과된 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문화를 전 국토와 국민에 강요하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장치로 보였습니다"라고 이 공화국의 폭력적인 토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쓴 진가스는 말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여러 크리스천 학살에서 살아남은 터키 남동부의 몇 안 되는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그리고 찰데인들은 곧 그들의 소멸을 마무리하려는 열의를 그 나라 전체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신문들은 그들을 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이 떠날 수 있는 마감일을 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시리아 북부로 도망쳤고, 그 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서 지배를 받았다. 순니파 이람계 다수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호적이라고 여겨지는 소수민족을 지원하고자 열심인 프랑스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너무 행복했을 뿐이다. 라스 알-아인에서 도망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난민들의 후손들은 터키의 작전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대량 학살과 1923년 그리스와의 강제 인구 교류를 통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제거한 터키는 이후 쿠르드족 소수민족을 목표로 삼았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신생 공화국 쿠





르드족 중심부인 남동부에서 일어난 거의 끊임없는 봉기는 학살로 진압되었고 터키의 정체성과 문화가 그들에게 강요된 서부 지방으로 수만 명의 쿠르드족을 강제 이주시켰다. 수만 명이 더 시리아 북동부 자지라 지역으로 도망쳤으나 수십 년 후 바트주의 이람화 정책과 오늘날 터키의 맹공을 받게 되었다. 1934년 제정법은 투르크화를 목표로 한 것이거나, 당시 수크루 카야 내무 장관은 "한 언어로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터키의 강제 재배치에 대한 역사는 오래되었고 그러한 기록은 최근 역사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쿠르드인들은 계속해서 터키의 공격을 받아왔다. "90년대 후반, 터키가 사용하고 있는 인구 통계 공학적 방법에 의한 인구 재배치의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2015, 2016년에 PKK(쿠르드 도동당으로 알려진 쿠르드 민병대)에 대항하여 대게릴라전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인구통계 공학적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가스는 설명했다.

터키군이 대피하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990년대에 종종 수천 개의 마을을 불태웠다. 2015년 휴전이 끝나고 남동부 도시에서 광범위한 전투가 벌어진 후, 거의 50만 명의 민간인이 실향한 것으로 국제사면위원회는 추정했다.

<출처: <https://foreignpolicy.com/2019/11/08/erdogan-wants-redraw-middle-east-ethnic-map-kurds-arabs-turkey-syria/>>





## 미국의 커다란 파워 문제가 중동에서 다시 불거질 것이다

글: 아리엘 코헨 (11/8/2019)

번역: 한국 번역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 시리아에서 약 1,000명의 미군과 여성을 철수하는 결정의 의미를 평가할 때, '역사'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벗어나면 전략 공백이 뒤따랐다. 전임자의 이라크 철수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에 대한 트럼프의 선부른 철군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구조는 4세대의 산물로서 수천 명의 미국인의 삶과 수조 달러의 투자비를 지불하고 있다. 국제적인 체제의 운영에 따른 성공으로 인해 1945년 이후 미국은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동맹, 무역 협정, 군사 기지, 민주적 가치 등이 포함되며, 교육, 기술, 비즈니스, 예술, 문화 아이콘이 지원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중 일부가 너무 비싸거나 쓸모 없다면,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리한 미국은 대영제국의 역할을 물려받았다. 나토, 브레튼우즈 협약, 독일과 일본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 플랜 등은 미국 정책 입안자에 의해 어렵게 개발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협약과 계약 등은 1991년 서방이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 이것들은 계속해서 세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에 부인할 수 없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20세기 초에 거인이었던 영국은 한때 세계 최강국이었다. 두 번의 세계 대전 이후, 재정 자원이 부족하고 기진맥진한 영국은 인도 대륙, 중동, 아프리카에서 철수하기로 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런던은 제국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었다. 역사는 이 결정의 결과에 대해 영국인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





성급하게 영국이 떠남으로 인해 지정학적 공백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일어난 일련의 갈등의 발판을 야기했다. 여기에는 인도의 분할(그리고 그 이후의 파키스탄과의 많은 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연합 사이의 많은 전쟁, 말레이시아의 공산주의/중국의 반란, 사이프러스의 실패한 에노시스(그리스와의 통합) 및 케냐에서 나이지리아에 이르는 아프리카의 끔찍한 인종 갈등이 포함된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피난민이 되었다. 구소련은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남 예멘의 아랍 사회주의 정권을 지원하면서 자유진영을 밀어제치려고 노력했다.

역사는 유사한 예들로 가득 차 있다. 오스만,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독일 제국이 멸망한 후 러시아 내전, 1920년 폴란드-소비에트 전쟁, 1919~1922년 그레코-터키 전쟁, 발트 국가와 핀란드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전쟁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다. 다시 수백만 명이 죽거나 피난민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0월 27일에 시리아 이дли브 지방에서 미국의 대담한 특수작전군 공습 중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살해됐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대테러전이 “임무가 완수됐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이는 시리아에서의 미군의 철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부대의 후퇴는 중동과 미국의 외교정책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쿠르드와의 동맹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쿠르드는 IS와의 피를 쏟아내는 전쟁과 바그다드 공습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러한 쿠르드와의 동맹을 포기한 것에 대해 현재나 미래의 미국의 파트너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지원 없는 YPG가 이끄는 시리아 방위군(SDF)은 이제 터키군에 의해 격파될 운명이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바와 계약을 맺었다. 이번 철군은 시리아 정부와 주요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에게 혜택을 주는 권력 공백을 만들 것이다. 한편 터키는 워싱턴을 위협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교훈을 습득하게 되었다.

러시아와 터키는 시리아 전쟁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긴밀히 협력해 왔다. 터키와 러시아는 터키-시리아 국경 지역의 공동 순찰을 수행하여 중동의 전력 중개인으로 모스크바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시리아에서 저 비용 고 부가가치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권력으로 보일 수 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최근 바그다드 방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하는 세력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라크 군 고위 관리들은 시리아를 떠나는 1000명의 병력이 대 테러 작전을 계속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에스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신에 나자 알 삼마리 이라크 국방장관은 미군이 이라크 영토를 통해 '이동' 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철수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





국의 약점을 드러냈다

이란도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이 주둔을 축소함에 따라 이란은 아덴만과 전략적인 홍해 입구, 수에즈 운하 남쪽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인근 등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과 걸프 지역, 특히 석유와 가스의 운송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는 이 전략적 공백이 중동 너머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의 공백 끝에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 대한 대대적인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연장선상으로 또 하나의 무력 과시이며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중국 역시 자원이 풍부한 대륙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2018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에 600억 달러(약 6조8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륙 빈곤국들을 위한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제의했다. 중국인 투자 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299달러를 이 나라에 투자했다. 미국 국제 개발 금융공사(DFC)의 후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60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미국의 최근 약속은 이 지역의 다른 권력자들과 경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어떤 나라도 자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세계적인 힘의 구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이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21세기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인 분석을 실행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비용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아리엘 코헨 박사는 대서양 협의회 유라시아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국제 세금 및 투자 센터의 에너지, 성장 및 보안 담당 이사다. 그는 러시아 제국주의 개발과 위기의 저자이다.

<출처: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americas-great-power-problems-will-come-back-haunt-it-middle-east-95126>>





#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사건: 이란 크리스천들에게 미치는 영향

글: 호르모즈 샤리아트 (1/20/2020)

번역: SWM 편집부

이란 정부는 여러 해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이번 글에서 본인은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이  
이란의 영적인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



MEHR NEWSAGENCY  
Photo: Maryam Kamyab

카셈 솔레이마니 장례식, 테헤란, 이란, 2020년 1월 6일

이란 정부는 곤경에 처한 상태다. 이란의 문제는 너무 다면적이고 복잡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란 정부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 외에도 트럼프의 행동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등의 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슬람 정권의 문제

### 1. 불경기

이란 경제 상황은 제재와 미흡한 결정 그리고 취약한 경제 인프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란 정부는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란 정부는 재정적인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공무원, 특히 혁명 수비대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정부 전체가 발각 뒤집힐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갑자기 경제의 기반을 제대로 다지기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고안된 것이 아니기에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그들은 경제의 문제를 풀 수 없다.





## 2. 부패한 정부

정부의 부패가 너무 만연하여 그 부패한 방식이 이란 정부를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방식이 되었다. 그들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1,500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이란의 부패는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많은 권력자들이 지원받은 돈 중 한 조각이라도 가지기를 원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최고 성직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부패는 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이다.

## 3. 반대하는 국민들

국민은 이란 정부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의 어려움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총알에 맞았다. 그 결과 정부와 심지어 이슬람 자체에 대한 증오심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 애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를 시도했던 사람들을 체포했다. 살해된 사람들 중 몇몇의 부모들이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잃은 것을 공개적으로 애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다.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고, 그것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

## 4. 군사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암살로 시작됐지만 트럼프는 더 많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이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약해 보인다. 이들은 40년 동안 이란이 초강대국임을 밝히며 이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실상이 발각되어 존경과 신뢰를 잃을 위협에 처해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의 위협을 통해 그들의 정부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과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희망은 그들에게 항의와 반대를 계속하도록 격려해 줄 것이다.

## 영적인 영향력

### 1.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의 급증

앞으로 6개월 내에 엄청난 수의 이란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





다. 2009년 녹색운동 때 정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고문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잔혹성을 통해 이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이슬람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무정한 종교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슬람에 대해 미리 마음을 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이슬람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복음의 메시지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심지어는 기독교에 반대하던 일부 광신적인 무슬림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크리스천이 된 이들이 우리와 연결이 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구원 받은 이야기를 나누어주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헌신된 무슬림들 사이에 크리스천이 되는 이들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슬림들 중 크리스천이 된 이들 중에는 심지어 성직자들과 정부 관료들이 있을 것이다.

## 2. 일시적인 박해 감소

정부가 싸워야 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들은 돈과 시간이 있을 때처럼 기독교를 파괴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협상 가운데 성공을 거두어 이란이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면, 그들은 기독교 박해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 3. 더 심한 박해

이란 정부는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체포하게 될 것이지만, 체포된 이들을 더욱더 가혹하게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징역 기간을 더 길게 하던지 형의 집행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몇몇의 크리스천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박해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거나 다른 기독교 단체와 연결하거나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다. 기독교가 점점 더 성장해나가고 정부가 이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박해를 더 심하게 할 것이다.

## 4.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더 큰 기회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빛은 어둠을 없앨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그렇기에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달라져야 할 때다. 국가가 소망이 없고 절망의 한 가운데 있을 때,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문화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지속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믿음을 공유해 달라고 부탁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쟁이 일





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행동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은 렘 49:38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뉴스를 듣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 즉 사단이 한 일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뉴스 등의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되면, 우리는 항상 사단의 뒤에서 몇 걸음 뒤쳐져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뉴스를 통해 듣고 나서 사단이 한 짓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단보다 몇 걸음 앞서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와 듣기를 원하신다.

###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행동할 때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지금은 행동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긴박함과 절박함이 내 영혼에 깊이 느껴졌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 긴박함과 절박함의 느낌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짧고 때는 악하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엡 5:15-17). 우리는 지금이 바로 이슬람 국가 중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로 나아갈 국가가 이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렘 49:38).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란과 중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나아가자.

〈Source: <https://hormozshariat.com/2020/01/10/qasem-soleimani-assassination-impact-on-iranian-christians/>〉





## Unfinished Task

#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PD(Global Prayer Digest)와 조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 400종족을 선정하여 400일간 매일 한 종족을 소개하면서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SWM선교회에서는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기도네트워크를 통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알리며 연합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땅끝까지, 40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의 연합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은  
다음과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기간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받아보시고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고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교회나 개인 기도자는 SWM 선교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400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홈페이지 (<http://globalupm.net/gpd/>)를 방문하셔서,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고.



<http://globalupm.net/gpd/>

관련문의 (미국): 허창도 간사 (714.999.8639)  
관련문의 (한국): 임동혁 간사 (010.8632.0278)



# 킹덤사역 후원안내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난민사역, 킹덤사역**에  
동참해주세요.

 SILK WAVE MISSION  
www.silkwavemission.com

## 미국후원안내

### 보내는 방법

Pay to the order of : **Silk Wave Mission**

수표를 적으실 때 MEMO에 헌금 목적을 기록해주세요.  
(여) SWM 특별헌금

주 소: **Silk Wave Mission**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연락처: **이은옥 간사 (714.999.8639)**

## 한국후원안내

### 보내는 방법

하나은행 150-910056-07504 (예금주: SWM Korea)

연락처: **임동혁 간사 (010.2100.4237)**

터키와 이슬람권을 위한

# 현지교회 개척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교회개척  
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 터키와 이슬람권에 수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 교회 개척 프로젝트)

### CPM (Church Planting Movement) 비전선언문

터키와 이집트, 쿠르디스탄 그리고 중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간 난민들 가운데 건강하고 재생산적이며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대추수를 보기 원한다

## 하나님께서 추수밭을 준비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개척기금 (Church Planting Funds) 을 통해 동역자님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 여러분은 기도와 재정으로 교회개척운동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돕는 재정(월 \$500) 가운데 매월 한 구좌 \$50 혹은 여러구좌 지원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미국: Pay to the order of: Church Planting Funds

연락처: 강우석 간사 (714.999.8639)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한국: 하나은행 150-910059-03404 (예금주: SWM Korea)

연락처: 임동혁 간사 (010.2100.4237)

교회개척자  
한 가정 돕는 재정

**\$500**  
/월

한 구좌로  
참여하는 방법

**\$50**  
/월



SILK WAVE MISSION

www.silkwavemission.com